

# 헝가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 I.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sup>2</sup>	G D P	1,256.48억 달러 (2016)
인구	9.84백만 명 (2016)	1 인 당 GDP	12,775.52달러 (2016)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 (Ft)
대외정책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	환율(달러당)	281.52 (2016)

- 헝가리는 중부 유럽의 내륙국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1989년 체제 전환 이후 적극적인 FDI 유치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를 개방했으며,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2014년 4월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청년민주동맹(FIDESZ)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며, EU의 난민정책에의 반대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5월 EU에 가입했으며 비셰그라드(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부 유럽 4개국 협의체) 회원국으로 협력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 실리 위주의 외교정책을 추진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o</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2.1	4.1	3.2	2.0	2.9
재정수지 / GDP	-2.5	-2.3	-2.0	-1.8	-2.6
소비자물가상승률	1.7	-0.2	-0.1	0.4	2.5

자료: IMF, EIU.

#### □ 수출여건 개선에 따라 2017년 경제성장률 2.9% 전망

- 수출, 투자 유치 등에서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경제는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1.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 이후 통화정책 완화 및 수출 호조 등으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여 2013년 2.1%, 2014년 4.1%, 2015년 3.2% 등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 2016년에는 EU 기금을 재원으로 한 프로젝트 종결에 따른 일시적 투자 감소로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임.
  - 1단계(2007-2013년) EU 기금 마감에 기인한 막바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 투자가 2015년 중에 추진되었음.
- 2017년에는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산업의 성장 지속, 헝가리 포린트화 약세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유로존 경기회복 등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상승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헝가리 자동차 생산량은 2014년 43.7만대, 2015년 49.5만대를 생산했으며, 2016년 53만대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 \*\* 유럽 횡단철도망(Trans-European Network) 현대화에 2020년까지 32억 유로 투자 등 2단계(2014-2020년) EU 기금을 재원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계획임.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 이후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하락, 긴축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4년 -0.2%, 2015년 -0.1%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디플레이션을 겪음.
-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0.4%로, 중앙은행의 중기 관리목표 물가수준(3%±1%)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에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확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회복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및 낮은 소비자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8월(7.0%)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 인하하여 2017년 8월말 현재 0.9%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될 전망

-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2004년 7월부터 EU 집행위원회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EDP)\*를 적용받았으나, 각종 특별세 신설, 금융거래세 인상 등 정부의 세수 확대 노력으로 2013년 6월 종료됨.
- \* EU 회원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3%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EDP를 적용받게 되며, EU 집행위에 구조개혁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20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세수확대에 힘입어 -1.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여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EU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출지향적 경제구조

- 헝가리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형성함. 이는 유럽 내 다국적기업들이 헝가리를

조립/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헝가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EU 전역으로 수출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EU 역내 교역의존도가 높아 EU 국가의 경제 및 수요변동의 영향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헝가리의 대규모 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 소유이며,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유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음.
- 2016년 EU 28개국에 대한 교역 비중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여,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79.4% 로 전년 대비 3.3% 포인트 증가하였고, 전체 수입에서의 비중은 78%로 전년대비 3.1% 포인트 증가하였음.
- 2010년 5월 출범한 오르반 정부는 EU에 과도하게 연계된 헝가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경제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며, 이를 통해 EU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 중임.

## 나. 성장 잠재력

### □ 지정학적 이점 및 풍부한 고숙련 저임금 인적자원 보유

- 지리적으로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우크라이나의 7개국과 국경을 접해 서유럽과의 접근성이 좋은 중동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유럽 내 생산 및 물류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World Bank 의 Doing Business 2017에서 헝가리는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41위/190위를 기록하였음.
- 고숙련된 저임금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노동임금 대비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공유센터(SSC) 및 R&D 센터가 증가하는 추세임.
-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헝가리 1인당 평균임금은 21,711 달러로 주변 동유럽 국가들인 폴란드(25,921 달러), 체코(23,722 달러), 슬로바키아(23,508 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8년말 경제위기 이후 BP, IBM, Vodafone 등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공유센터를 헝가리로 이전했고, Bosch, GE 등의 R&D 센터 설치가 이어지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EU 기금을 재원으로 한 중장기 경제성장계획(Szechenyi 2020) 수립

- 정부는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및 기후·에너지의 5개 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 대응하여 'Szechenyi 2020'의 중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함. 2014~20년 회계기간 동안 배정받은 EU 기금(219억 유로)을 포함하여 총 257억 유로의 예산으로 경제개발(35.1%), 도시개발(15.5%), 교통개발(15.2%), 환경·에너지(14.7%)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ESIFs)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총 3,518억 유로를 지원하며 특히 동유럽 회원국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분함.
  - 동유럽 국가 중 폴란드가 전체 기금의 22%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고, 이어 루마니아 6.5%, 체코 6.2%, 헝가리 6.2%, 크로아티아 2.4%, 불가리아 2.2% 순서로 배정받음.

### □ 과도한 EU 경제의존도 개선을 위해 동방 정책 추진

- 헝가리의 수출입은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EU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 증가 또는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헝가리는 EU 국가들에게 과도하게 집중·연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동방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2015년 중국과 신 실크로드(New Silk Road) 협정을 통해 중국의 중부 유럽 내 중점 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공공 프로젝트를 비롯한 금융, 산업(항공·화학·전기전자)에 대한 전 방위적 협력을 강화 중임.

□ 국가 핵심산업(자동차·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헝가리 내 제조 시설을 갖고 있는 3대 완성차 업체인 아우디, 다임러, 스텔란티스 등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자동차 산업은 2015년 기준 헝가리 총 수출의 37.3%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헝가리 경제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인도 아폴로 타이어 4억 7,500만 유로, 벤츠 1억 유로, 아우디 1,030만 유로 등의 자동차 부문 투자유치가 이루어 짐. 국내에서도 2016년 8월 삼성 SDI의 헝가리 내 전기자동차용 2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1조원 투자 결정 이후, 국내 기업들의 대 헝가리 투자 진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2017년 1월 1일부터 종전 19%에 달하던 법인세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일률적으로 EU 역내 최저인 9%로 낮추었으며, 27%에 달하던 고용주세도 2017년 22%, 2018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이는 최근 헝가리 내 실업률 감소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자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한 정책이며, 기업의 급여지급 능력을 개선하여 최근 헝가리를 이탈하는 젊은 노동자를 헝가리에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3. 대외거래

□ 2016년 외환보유액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16년 외환보유액은 FDI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감소한 25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월평균수입액 대비 2.6개월 수준으로 유동성 공급이 불안한 상황임. 2017년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269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2.5개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10년 이후 연속 흑자 달성

- 헝가리는 과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했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

자동차 산업 성장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2010년 이후 흑자 전환됨. 특히, 2013~15년에는 유로존 경기 회복세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평균 GDP 대비 3.2%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해 GDP 대비 5.4%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7년에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동 비율이 3.7%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2016년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104.5%, 총수출 대비 103.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외채상환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감소 추세, 경상수지 흑자 규모 유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o</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5,095	2,823	3,986	6,753	4,903
경 상 수 지 / G D P	3.8	2.0	3.3	5.4	3.7
상 품 수 지	140,397	108,440	76,559	68,309	75,618
수 출	93,299	98,845	88,322	91,602	98,722
수 입	88,869	95,684	83,428	85,780	93,279
외 환 보 유 액	46,254	41,775	32,900	25,406	26,916
총 외 채 잔 액	148,870	145,352	127,426	131,275	131,752
총 외 채 잔 액 / G D P	110.5	104.4	104.7	104.5	99.0
D . S . R	30.9	26.0	25.9	26.5	26.7

자료: IMF, EIU, OECD.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상황

- 2014년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재집권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

- 2014년 4월 총선에서 피데스당이 사회당을 누르고 전체 의석의 67%를 차지하며 재집권에 성공함. 2010년 집권 이후 거시경제지표 개선, IMF 앞 대기성차관 조기 상환('13년 8월) 등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 재집권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등 실리주의적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한편, 난민이주와 관련하여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 2018년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오르반 총리의 4선 당선 여부 주시

- 빅터 오르반 총리는 35세라는 나이로 1998년 초임한 이후 2010년 과거 사회당이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실업률 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함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잃음으로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경제회복에 따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상승, 강력한 카리스마 및 리더십으로 2014년 3선에 성공하였음.
- 오르반 총리는 친러시아 노선을 비롯한 제한적 민주주의로 EU 집행위와 갈등을 빚고 있고, 헝가리계 미국 재벌인 조지 소로스가 지원하는 헝가리 내 세력들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다만 최근 헝가리의 경제가 계속 상승세에 있고, 3선을 통해 오르반 총리의 능력이 이미 검증 받은 상태라 2018년 4월 총선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유럽 내 대표적인 극우주의 국가

- 헝가리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주요 경로인 발칸 반도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시리아 내전 격화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유입 및 난민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함.
  - 기존 지중해를 통한 유입이 선박 침몰 및 연안국 해안 단속 강화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칸 반도 국가들을 거쳐 헝가리로 들어오는 난민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 헝가리에 난민 신청을 한 유입민은 17만 명으로 EU 내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함.

- 현 오르반 정부는 2016년 10월 난민수용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까지 붙였으나 투표율이 절반을 넘지 못해 무효화되었으며, 2016년 11월 난민 정착 금지 개헌안에 대한 의회 투표에서도 찬성표가 2/3에 미달되어 부결되었음.
- 한편, 난민 캠프와 닿아있는 헝가리-세르비아 간 국경에는 불법이민 방지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무분별한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임.
-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IS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음.

□ 실업률은 2017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였으나 2013년 이후 경제회복세에 따른 민간부문 일자리 증가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역대 가장 낮은 4.4%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 변동 추이 : 10.2%( '13) → 7.8%( '14) → 6.9%( '15) → 4.9%( '16) → 4.4%( '17)

3. 국제관계

□ 난민 유입 반대, 친러 행보 등 EU와의 갈등 가능성 잠재

-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역내 공동목표를 위해 협조해 왔으나, 최근 난민 유입에 대한 EU의 정책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갈등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오르반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난민 강제할당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음.
- EU는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불법 병합한 이후 가했던 대러 경제제재를 2018년 6월 23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헝가리는 EU 회원국이지만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EU와의 갈등이 고조됨.

□ 미국 트럼프 정부와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

- 미국 오바마 정부가 헝가리의 난민차별 정책, 언론자유 억압 등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미국과 헝가리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음.
- 2014년에는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이 부패 혐의로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져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태가 되기도 하였음.
-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독’ 이라고 부르는 등 강경한 발언 및 반난민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 세계 극우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르반 총리는 정치적 동행자로서 트럼프 후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였으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미국과 헝가리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회원국으로서 중유럽 국가들과 협력관계 지속

- 헝가리는 비셰그라드 그룹 회원국으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 비셰그라드 그룹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 협력체로, 1991년 EU 및 NATO 가입을 목표로 창설된 이후 EU 내 중유럽 4개국 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지속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2013년 IMF 앞 대기성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 양호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외채상환 부담이 증대되어 IMF와 2년간 157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 협정을 체결함. 2011년 말 IMF 앞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점진적 경기회복에 힘입어 추가 지원을 받지 않음.
- 또한 2013년 8월 IMF 앞 잔액인 28.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현재 IMF 앞 채무는 없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49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7위 수입대상국

- 헝가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49위 수출대상국이자 47위 수입대상국임. 2016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약 16억 달러로 전년(17.5억 달러) 대비 8.6% 감소하였음.
- 수출의 70% 이상이 진출기업 공장으로 납품되는 중간재이며, 최근 중국, 베트남 등의 우회 수출 물량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2016년 대 헝가리 수출규모는 약 9.5억 달러로 전년(10.2억 달러) 대비 6.9% 감소하였음.

< 표 4 >

한·헝가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481,305	1,016,491	953,199	전자제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 입	515,306	735,388	651,014	축산물, 전자제품, 수송기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7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244건, 4억 6,735만 달러

V. 종합 의견

- 헝가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3년 이후 수출 호조, EU 기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2016년 기준 10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외채상환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감소 추세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과도한 EU 경제의존도 개선을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국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EU 역내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음.

- 정치적으로는 2014년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경제회복에 따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신뢰 상승, 강력한 리더십으로 재집권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오르반 총리의 4선 성공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헝가리는 EU 회원국이지만 EU 집행위원회의 난민 강제할당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EU의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러 행보를 보이면서 EU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므로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임.

책임조사역 김희원(☎02-6255-5720)  
E-mail : kheewon@koreaexim.go.kr